

吳 榮 世 議 員

“깨어나라! 식장산”

동구 제2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오영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50만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사건과 한·미 FTA 협상추진, 제4대 동시지방선거와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장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시정의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정진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시의회 사상 가장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2, 3, 4층 로비에서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시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골고루 행복을 누리며,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판암동 「무지개(레인보우)프로젝트」 1단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대 과제 27개 단위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82억 2,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 1> 사업개요

연번	과 제 명	단위사업수
1	청소년 교육·학습여건 개선	7
2	어려운 이웃 자활지원 확대	8
3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개선	2
4	근린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3
5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1
6	지역 도로·교통시설 정비	3
7	지역 활력화 사업 추진	3

<도표 2> 소요예산

○ 재원별

(단위: 백만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18,226	2,051	13,821	2,018	336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계	2006	2007	2008이후
18,226	6,013	9,263	2,950

무지개 프로젝트는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환경적인 측면을 정책에 반영하여 민선 4기 공약드라이브 차원에서 집중 투자·활성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무지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판암동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으나,

실제 프로젝트 사업 7대 과제와 그에 부수된 27개 단위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나다.

<도표 3> 단위사업별 예산반영 현황

구 분	사 업 명
예 산 미반영 사 업 (9)	학교시설 지원, 무지개도서관 건립, 1:1 희망튜터제 운영,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종합자활센터(자활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재활지원) 설치, 판암근린공원 조성
예 산 반 영 사 업 (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생활영어교실 운영, 판암도서관 시설장비 보강, 보육(탁아)시설 확대 지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휴일 무료급식 제공,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판암 3·4단지 주거환경개선(2),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확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판암 3·4단지 도로정비, 교통안전시설 개선,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다기능복지관 건립, 가로 환경정비 / 판암 3·4단지 아파트 이름 개명(비예산 사업)

특히<도표 3> 단위사업별 예산반영 현황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에서도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판암 다기능 복지관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이 미흡합니다.

학교시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시설장비 보강, 1:1 희망 튜터제, 청소년 생활영어 교실, 찾아가는 문화공연활동 지원 등은 사업의 성질상 기이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광역자활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센터 운영비 등 제반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70~80%)이 없어서 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자활센터 건립은 부지확보도 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판암다기능복지관 건립은 이미 2년 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사업비 48억원(국비 8.5억, 시비 26억, 구비 13.5억)이 확보되어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무지개 프로젝트 1단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단발성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사업은 적은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라 하면 창의적인 시책과 사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대상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순히 전시성의 짜깁기식 사업으로 추진할 공산이 많습니다.

짜깁기식 사업은 혁신성이 부족합니다. 만약 짜깁기식으로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업명을 Q-project (짜깁기 프로젝트 : quilting-project)로 바꿔야 옳을 것 같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종합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전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재원을 제때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전시와 구청,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추진체계 면에서 현재의 기획관리실 내 T/F팀 운영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며,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가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재원 확보 면에서, 시가 구청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프로젝트 추진체계 면에서,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백화점식으로 세부 단위사업들을 한 지역에 집중 시행하는 것만으로 지역민을 감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들 사업을 하나로 묶어 동구 판암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위 랜드마크 빌딩(가칭 복합문화복지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대안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알맹이 없는 무지갯빛 시책으로 허황된 꿈에 젖게 한다면, 오히려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천국에 살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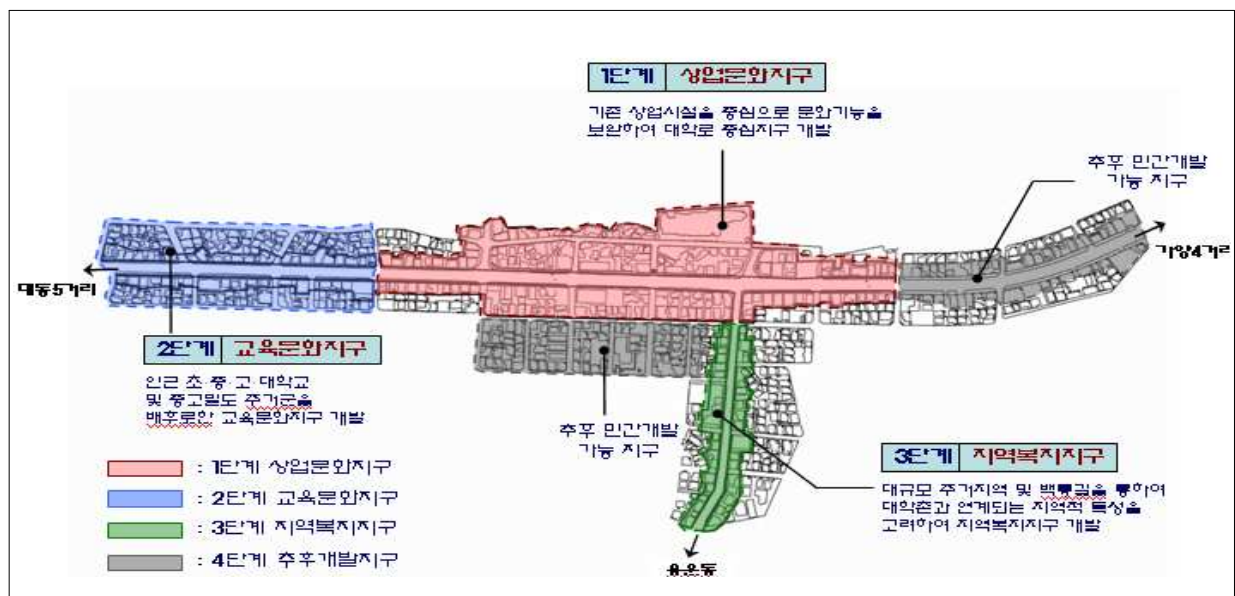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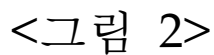
나아가 판암지역을 저소득 영세지역으로 낙인·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예기치 않은 반목과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양동 대학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자양동 우송공대·정보대 앞 대학로를 중심으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학가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림 1>



개발방향은 테마파크형 개발로 소비 중산층을 끌어들여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Story-Telling(이야기)방식의 개발로 유흥가 난개발을 방지하며, 민·관·학 협력체제를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여 개발할 계획이라고 시장께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주변개발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백룡길 확장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민원 발생과,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수골 대학촌 내 공원조성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개발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수골 대학촌 내 공원조성사업이 겹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룡길 확장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보상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백룡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나중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지역을 적의 구분하여 원활한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구간 일괄 보상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조속한 예산확보로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 (40억원씩 2회 반영)하여 보상을 추진하면 주민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인근의 주거형 택지개발과 도로기반시설은 관이 주도하고, 대학 캠퍼스 주변의 문화와 상권형성은 지역 주민과 대학이 창의적인 참여 속에서 조화롭게 접점을 찾아 지역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학은 콘텐츠 개발과 자체부담 투자를 하여 주민이 지역 활성화와 상권형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관주도의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과 대학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장산 개발계획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인 식장산은 숲과 물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여 일찍부터 대전 8경의 하나로서,

해가 바뀔 때면 많은 시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정상에 올라 해돋이를 지켜보면서 신년을 기원하며 축복을 비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이 양호하여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간에는 일출과 일몰의 광경을, 야간에는 야경을 보면서 즐기려는 아베크족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휴양과 관광의 명소로 점차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어 차량 교행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정상 주변에 관람시설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식장산을 찾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긴 잠에 빠져있는 식장산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식장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식장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대청호반과 대전 시내 전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전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전망타워(가칭 명품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식장산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대청호 주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 판암 종점역을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현재 판암역 종점에서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2.58km(지하 2.07km, 지상 0.51km, 사업비 약 2,016억원) 연장할 경우 세천유원지와 식장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인근지역인 충북 옥천·영동·보은 지역민들도 도시철도 접근성이 용이해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식장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민자를 유치하여 대청호관광벨트와 식장산을 연계하는 미니열차 또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전시민과 대청호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관광 명소로 가꾸실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발상지였던 원도심의 모든 부문이 서구, 유성구의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등 일방적인 신도심 위주의 성장정책은

과거 명문이었던 동부의 고등학교를 기피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대전을 동·서로 갈라놓았습니다.

동·서간 교육격차가 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서울소재 대학진학률은 동부(동구, 중구, 대덕구)지역이 5.6%로, 서부(서구, 유성구)지역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에 있는 특목고(외고, 과학고)를 포함하면 13.9%로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전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지난해 4년제 대학 입학률은 서구 82.9%, 유성구 83.4%인 반면, 동부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입학률은 60~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신입생의 거주지도 서부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대전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부지역인 서구(454명)와 유성구(166명) 거주지 학생이 62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대덕구(145명)와 동구(84명), 중구(109명) 등 3개 지역에서 338명으로 3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도 비슷한 실정으로 이 기간 서부지역에서 전체의 57.5%인 119명이 입학했지만, 동부지역은 42.5%인 88명에 머물렀습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고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신도심으로 이주하거나 전세를 얻어 떠나가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청이 실시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주민 설문조사 결과 특목고 유치에 대다수가 긍정적(94%, 1,674명)이었고, 유형으로는 외고(38%)를 선호하였으며,

특목고 유치시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79%가 응답하여 동구 주민 대다수는 특정 학교의 외고 전환 문제를 떠나 특목고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목고 유치 등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